# "고마워요, 삼성전자"…180조 투자, 협력업체 주가 '들썩'

### 픽셀플러스, 전일比 11.8% ⬆
### SK머티리얼즈도 6.7% 올라
### AI 등 4대 미래성장 사업 중심
### 관련 기업 주가 이틀째 상승세

삼성전자의 180조원 투자 소식이 전해지자 수혜주를 중심으로 낙수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삼성전자의 이익보다 하청업체가 받을 수혜가 더 클 것으로 기대되면서 관련기업 주가는 이틀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9일 픽셀플러스는 전일 대비 11.74% 오른 1만19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29.40% 상승한 것에 이어 2거래일 연속 상등세다. 픽셀플러스는 CMOS 이미지 센서, 칩셋 개발·설계 전문업체로 전날 삼성전자가 전장부품 육성 계획을 밝힌데 따른 대표적인 수혜주로 꼽히면서 주가가 급등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삼성전자는 향후 3년간 총 180조원의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국내 생산 거점인 평택 등을 중심으로 130조원, 중국. 베트남 등 해외 생산설비 증설에 30조원, 기업 인수합병(M&A) 재원으로 약 20조원을 활용하겠다는 게 주요 골자다.

이에 주식시장에서는 삼성전자 투자 수혜주 찾기가 진행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인공지능(AI)·5G·바이오·전장부품 등 4대 미래 성장 사업과 반도체·디스플레이 중심 투자 전망을 밝히면서 관련 기업들의 주가 상승에 탄력이 붙었다. 특히 바이오·소재·스마트팩토리 업종의 주가가 크게 반등하고 있다.

우선 삼성전자는 바이오 분야를 '제2의 반도체' 사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또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바이오 산업 규제 완화를 요청했을 정도로 삼성전자의 바이오 육성 의지는 충분히 증명됐다.

이에 바이오주 전반에 투자 심리가 살아나고 있다. 이 중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최근 3거래일 연속 상승해 이 기간 수익률만 15.6%다. 향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그룹의 바이오 지주사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투자 열기는 쉽게 식지 않을 전망이다. 또 삼성 그룹의 미국 내 바이오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바이넥스 역시 2거래일 연속 상승해 3.9%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소재업종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삼성전자가 대규모 자금을 투입해 생산시설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소재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돼서다. 이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외 반도체 제조회사에 반도체 공정의 핵심 소재를 공급하고 있는 SK머티리얼즈가 최근 2거래일 동안 6.7% 올랐다. 특히 대신증권은 반도체 생산 확대에 따라 2019년 SK머티리얼즈의 영업이익 증가율은 33%에 달할 것이란 전망과 함께 삼성투자 확대에 따른 최선호주로 꼽았다.

김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 시설투자에 따른 전통적 수혜주는 장비주였지만 이제는 소재주가 더 유망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삼성전자의 평택 2층 가동 이후 소재주 매출의 가격(P), 출하량(Q) 중에서 Q가 계단식으로 증가하는 국면에 진입했고, 시안 2차·평택2차·화성 주차장 부지 등의 시설투자가 이어진다면 소재주의 실적 증가 흐름이 향후 수 년간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스마트팩토리 업체의 반등도 눈에 띈다. 특히 삼성전자는 회사와 직접적인 거래관계가 아닌 기업들을 포함해 총 2500개의 중소기업의 스마트팩토리 전환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때문에 스마트팩토리 관련주는 삼성 그룹과 연계된 사업을 진행하지 않아도 고른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에 알에스오토메이션(모션제어), 고영(검사장비) 등이 이틀 동안에만 각각 13.3%, 2.8% 올랐다.

또 아남전자는 삼성전자가 인수한 하만카돈에 AI 스피커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는 점이 기대를 받으며 이틀 간 7.0% 올랐다.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의 대규모 투자 발표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정량적 규모보다 '협력사 지원' 등 상생/협력에 상당한 방점이 찍혀 있다는 것"이라며 "한국경제에 있어 최소한의 안전추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손엄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삼성전자 관련주 주가 수익률〉 (8월8일~9일 기준)

| 업종 | 종목 | 수익률 |
|---|---|---|
| 바이오 | 삼성바이오로직스 | 8.5% |
| | 바이오로그디바이스 | 4.3% |
| | 바이넥스 | 3.9% |
| 소재 | SK머티리얼즈 | 6.7% |
| 스마트팩토리 | 알에스오토메이션 | 13.3% |
| | 고영 | 2.8% |
| AI·5G | 아남전자 | 7.0% |
| | 에스모 | 2.7% |
| | 픽셀플러스 | 44.6% |

자료 : 한국거래소

〈삼성전자 투자 사업부문 관련 종목〉

| 산업 | 관련 종목 |
|---|---|
| 반도체 | 네패스, 테스, 원익 IPS, 케이씨텍, 피에스케이 |
| 디스플레이 | 에스에프에이, AP 시스템, 원익테라세미콘, 코오롱인더스트리, SKC 코오롱 PI, 덕산네오룩스, 한솔케미칼 |
| 전장부품 | 삼성전기, 한컴 MDS, 켐트로닉스, 세코닉스, 엠씨넥스, |
| 5G | 서진시스템(RRH 함체), 케이엠더블유(RRH), RFHIC(RF 모듈), 에이스테크(RRH) |
| 스마트팩토리 | 알에스오토메이션(모션제어), 아진엑스텍(모션제어), 로보스타(자동화 기계), 에스피지(감속기), 고영(검사장비) |

자료: NH 투자증권 리서치본부

>> 1면 '주행 중 시동꺼짐…서 계속

# 현대차, 디젤모델 생산 중단… 친환경차에 집중

### 같은 차종 뿐만 아니라
### 'E클래스' 등에도 발생
### 소비자들 PHEV 등 친환경차 선호
### 그랜저·i30 등 10일 이후 생산중단

여기에 내년부터는 소비자가 국토교통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교환·환불 중재를 신청해 교환·환불 중재판정이 나면 반드시 교환·환불을 하도록 자동차관리법도 개정됐다.

백씨는 "감가비용으로 2500만원을 부담했는데 다시 감가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최근에는 파킹레버가 작동하지 않아서 추돌사고까지 발생했다. 불안해서 도저히 타고 다닐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조향장치에서 지속적으로 소리가 나서 서비스센터에 2년 동안 수리를 받았는데 나아진 게 없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백씨가 활동하고 있는 벤츠 동호회 회원 중에는 같은 차종뿐만 아니라 E클래스 등에서도 시동꺼짐 현상이 발생해 불편을 겪는 소비자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2015년에는 벤츠를 소유한 한 고객이 광주에서 골프채와 야구방망이로 문제의 차량을 부순 사건이 있었다. 당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언론을 통해 이 문제가 확산되자 그때서야 교환을 약속했다.

이후 국토교통부는 문제의 차량 721대를 리콜 조치했다. 해당 차량은 백씨의 차량과 같은 S63 AMG 차종이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관계자는 "감가비용 지불 규정이 있지만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부합하면 교환 해줄 수 있다"면서도 "해당 차량 증상에 대해서는 구두로만 보고를 들어 확인을 못했다"고 전했다.

/정연우 기자 ywj964@

현대자동차가 디젤 모델의 생산을 줄이고 친환경차에 집중한다.

이는 최근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디젤차 배출가스 규제 강화와 함께 하이브리드(HEV), 전기, 수소차 등 친환경차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9일 현대차에 따르면 국내에서 그랜저와 쏘나타, i30, 맥스크루즈 등 4개 차종의 디젤 모델 생산을 10일 이후 중단하고 재고물량만 판매할 계획이다.

생산 중단 이유는 판매량 저조다. 지난해 연간 기준으로 그랜저와 쏘나타의 전체 판매량 중 디젤 모델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6%, 2%에 그쳤다. 반면 하이브리드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등 친환경 차량의 판매는 증가 추세다.

현대차 그랜저.

i30와 맥스크루즈는 전체적인 판매량이 적어 더 이상 비용을 들여 디젤 모델의 생산을 유지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디젤 모델은 가솔린 모델보다 판매 가격은 더 비싸지만 기름값이 싸고 연료효율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그럼에도 판매가 부진한 것은 최근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차를 선택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유가 상승과 각종 환경 규제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차에 대한 선호도가 눈에 띄게 높아져 디젤 모델의 비중을 줄이기로 한 것"이라며 "디젤 라인업이 줄어든 만큼 친환경차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아차는 아직 디젤 모델의 생산을 중단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성운 기자 ysw@

# 연구부정, 법령으로는 한계… "학회별 가이드라인 만든다"

### 교육부
### 학회별 연구윤리 가이드라인 사업
### 한국유통과학·진공학회 최종 선정

교육부가 표절 등 연구부정 행위 근절을 위해 분야별 상세한 연구부정행위 기준을 만든다. 이에 따라 학문 분야별 연구부정의 기준이 상이하게 적용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학회별 연구윤리 가이드라인 지원사업' 대상으로 한국유통과학회와 한국진공학회 두 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한국유통과학회는 1999년 설립된 복합 및 융합학문의 인문사회과학분야 최대 학회로 국내 사회과학분야 학술지 중 최대규모인 연간 200편 이상의 논문을 발행하고 있다.

교육부가 '학회별 연구윤리 가이드라인 지원사업' 대상에 한국유통과학회와 한국진공학회를 선정했다. 두 학회는 올해 12월까지 구체적인 저자 표시 기준 등 연구윤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타 학회에도 확산시키게 된다.

1991년 설립된 한국진공학회는 국제진공과학기술응용연맹에 가입된 국내 유일의 진공관련 학회로, 회원 4000여 명이 등록, 매년 100여편의 국제수준 학술논문을 게재하고 있다.

두 학회는 올해 12월까지 구체적인 저자표시 기준 등 연구윤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향후 이를 적용해 논문투고 심사 등을 진행하게 된다.

또 학회별 마련한 연구윤리 가이드라인을 연구윤리 포럼 등에서 발표해 다른 학회에도 적극 확산토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앞서 지난해 2월 훈령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제정한 이후 지침 해설서 제정 등 연구부정행위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법령으로는 개별 학문분야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 기준을 상세히 규정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 때문에 연구 부정 행위 예방은 물론 사후 판정 등에 여전히 많은 혼란이 있는 실정이다.

교육부는 논문투고기준 등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 학회가 분야별 특성에 맞게 연구윤리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 올해 처음으로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심민철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 "최근 미성년자 논문 저자 등재도 근본적으로는 논문에 저자 자격 부여 기준이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며 "건강한 학술 연구윤리 풍토 조성을 위해서는 학계가 자율적으로 연구부정 유형별 세부 기준을 만들고 이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용수 기자 hys@